

# 괴수가



[해제]

<괴수가>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지어진 작품으로 화전가류 가사에 속하는 규방가사이다. 연작으로 이루어진 <괴수가> 작품들은 대부분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주고받은 논쟁을 주로 담고 있으며 동일 계열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회조가>, <답괴수가>, <반괴수가>, <자소가> 등이 있다. <괴수가>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간 시누이가 귀령(歸寧)와서 놀이하던 장소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올케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시누이들은 지금 올케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자신들의 친정인 어진 시댁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삶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자신들을 대접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미한 집안에서 훌륭한 집안으로 시집와 복을 누리고 살았으면 자신들을 포함한 시댁식구를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며 올케들을 훈계하고 있다. 또한 시누이들이 올케의 가문을 무시하면서 그들의 가문을 과시하는 면도 드러난다. 그러나 본 작품은 <괴수가>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작품의 내용상 <답괴수가>로 보인다. 작품의 첫 부분에 “제종 식매들아 이 내 말삼 들어보소”의 구절로부터 시작되며 작품 중간에 자신이 한훤선생(김광필)의 후예라고 하는 점에서 시누이들이 지은 <괴수가>에 대한 답가로 올케가 지은 것으로 보인다. <괴수가>에서 시매(媿妹)들에 의해 조롱을 당했던 올케는 그에 대한 반론과 귀령(歸寧) 온 시매(媿妹)들에 대한 훈계를 노래로 풀어놓는다. 먼저 화자는 자신의 집안이 교남(嶠南)의 명족(名族)이요 국내(國內)의 대반(大班)이라며 시댁 못지않게 대단한 가문임을 밝힌다. 그리고는 시누이들의 부덕함을 비난하였으며 어른 공경과 자손 훈계, 치산과 방적, 법도에 맞는 행동거지 등에 대해 논하였다. 올케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시누이로서의 책무에 힘쓰라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교남의 명족인 자신의 집에 비해 보잘것없는 시누이들의 가문을 비웃었다. 대부분 경제적인 부를 기반으로 하거나, 한미한 벼슬, 몰락한 처지에 있어 보잘 것 없는 양반이라며 <괴수가>에서 시누이들이 자신을 무시한 것과 똑같이 조롱하고 있다.

[원문]

괴수가

◆와제종 식매들아 이내말삼 덜어보소

각각친정 변화하고 형성하고 남만이나 흥건마난  
 가소로다 여즈뭉이 남의게 마인고로  
 성당한 제종숙질 멧멧히로 그리난고  
 유시로 칭각하며 굿썸심스 돌대업서  
 발건달 힌구람은 부모형제 칭각이요  
 천원기수 흐런물은 고향산천 의히허다  
 다갓탄 여즈로서 그대들은 어이허여  
 청천의 구람뭇듯 벽해의 물결갓치  
 이리뭇고 저리모혀 부모슬하 념노난양  
 솟가온대 나위련가 오동소웃 봉황인가  
 희희낙낙 흥난모양 우리마암 부럽도다  
 가소롭다 우리들도 조헌바람 디리불며  
 춘풍삼월 연자갓치 고택을 차자더르  
 부모동고 즐긴후에 길일양신 가려내여

삼삼오오 싹얼지어 녹음방초 승화시에  
놀대로 노라보시  
가소강남 이분내야 하도조롱 어인말고  
막비왕토 너런천지 어대가 못사리요  
서울이 상도라도 한양유학 드옥설고  
웅천이 하도라도 제날타시 아니런가  
명태양반 조롱마소 명태라 허난고기  
일흥을 이랄진대 명성검지 이안니며  
월내을 불작시며 북해태수 그럴손야  
조흥시고 조흥시고 명태양반 조흥시고  
한산양반 누길년고 허허이말 가소롭다  
승기자랄 염지허여 심술구진 군자내가  
손안대고 씹는구나  
거대양반 내여노소 아가사창 우업도다  
아달자랑 흥일년강 선대시업 전하기도  
아들이 제일이요 후세복늑 연면키도  
아들이 엇덤이라  
그대들 진미워도 나난드옥 얼아보새  
동개동개 내강아지 소중코도 유관허다  
엄전암전 이내들이 매사가 천연하니  
엄전허기 자연이요 천성이 민첩허니  
암전허기 여식으로  
엄전암전 아니오며 사람이라 발명할가  
월영들녕 군제시난 시기허난 말리로쇠  
동실동실 구살말은 그기다 조롱인가  
야광쥬 광명주난 천하절보 이안인가  
연경쥬 여어주나 갑실준들 구할손야  
빅옥이 무하허니 무험허기 가지로식  
아니할가 아니할가 일가재식 아니할가  
빅대지친 일너그든 하물며 우리양반  
한헌선생 후예로서 교남의 명족이요  
국내의 대반이라 제신들 아니할가  
즈별허의 즈별허의 동향동서 즈별허의  
내고향이 동서고향 내시덕이 동서식덕  
그정분 엇드허며 그친의 오착허리  
조롱할말 바히업서 치산알들 조롱인가  
조선의 전한시업 못직허며 뉘타시며  
자손의 지칠재물 못불인 내흥일쇠

거대들 차자올제 대접못한 타시로쇠  
이보소 제종 식매들아 우리말삼 드러보소  
여자몸이 되어그던 여즈직분 할지어다  
어룬을 공경하고 자손을 훈기하며  
치산도 허련이와 방적인들 바릴손야  
운용한 행동거지 유한한 심성으로  
노름을 한다해도 약속 엄식으로  
규중의 설시하고 조용히 할거시지  
무래한 분내들은 호남즈의 썬을바다  
공청의 히소정코 쇠바린지 잡혀다고  
뭉텅뭉텅 땀을지어 식굴덤빙 찍기면서  
이도가자 저도가자 우리마암 모라고서  
두번세번 간청허대 총예할듯 업건마난  
거를망정 식민고로 무루히 녀일넌가  
십분마암 간작허여 뎡한다시 싸라가니  
상좌익 안치고서 양간회 기장국의  
대접이야 착실허나 마암의 불가  
구미가 절노업째 무지막지 이분내야  
자괴한줄 모라고서 못한일을 잘한치로  
면면니 자랑허며 철갓탄 우리마암  
이리헌들 저리헌들 허로노림 빅설하고  
오날갓치 노라보시  
괴암괴암 허것마난 어리석은 어나뉘가  
저거란줄 모라고서 부망지사 행할년가  
우리잔체 먹어려던 수다한 자질농덜  
신행하고 조문할제 아니잇고 청허거던  
부조나 만이허고 저저이 도라오며  
식빠가자 도창자와 명태대갈 문어공지  
싹싹쥬 한잔으로 포식을 시기리라  
양반식미 대접말언 취중의 한마리가  
진정으로 농담인가  
거대들 본양반은 조헌줄 알건이와  
아지못한 식택양반 각각으로 내여노소  
종반거장 하당덕아 호가사가 양반인가  
중널건니 학동덕아 문필허며 양반인가  
자궁조헌 진평덕아 센스장이 양반인가  
숨시조헌 관동덕아 나락섬이 양반인가  
새각시 신안덕아 신랑쫓타 양반인가

심성조현 부산집아 산협사리 양반인가  
알들흐다 신곡집아 탕근흐나 양반닌가  
예무시라 양반보소 양반걸여 못살갓내  
비위가 단단흐며 부병하기 제일이요  
빅연을 축수흐니 인정도 고맙도다  
우리들 분요중의 이가사 기록기난  
미거한 식미들을 행사랄 가라치니  
시시로 펴어보며 유익흐미 업실손야  
일후의 바래기난 관목상대 원이로쇠  
정월이십일  
곳

## [현대역]

어와 제종(諸宗)1) 시매(媿妹)2)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각각 친정(親庭) 번화(繁華)3)하고 흥성(興盛)4)하기 남만이나5) 하건마는  
 가소(可笑)6)로다 여자몸이 남에게 매인고로  
 성당(成黨)7)한 제종(諸宗)숙질(叔姪)8) 몇몇해로 그리난고  
 유시(幼詩)9)로 생각하며 굿분10) 심사(心思)11) 둘 데없어  
 밝은 달 흰 구름은 부모형제 생각이요  
 천원(泉源)기수(淇水)12) 흐른 물은 고향(故鄉)산천(山川) 의희(依稀)하다13)  
 다같은 여자로서 그대들은 어이하어  
 청천(靑天)의 구름뭉듯14)碧海(碧海)15)의 물결같이  
 이리뭉고 저리 모여 부모(父母) 슬하(膝下)16) 넘노는 양  
 꽃 가운데 나비런가 오동소옥 봉황(鳳凰)인가17)  
 희희낙락(喜喜樂樂)18) 하는 모양 우리 마음 부럽도다  
 가소(可笑)롭다 우리들도 좋은 바람 디리19)불며  
 춘풍(春風)삼월(三月) 연자(燕子)20)같이 고택(故宅)21)을 찾아들어  
 부모동기(父母同氣) 즐긴 후에 길일양신(吉日良辰)22) 가려내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녹음방초(綠陰芳草) 승화시(勝花時)23)에  
 놀대로 놀아보세  
 가소강남 이 분내24)야 하도(下道)25)조롱 어인 말고  
 막비왕토(莫非王土)26) 너른 천지(天地) 어디가 못살리요  
 서울이 상도(上都)라도 한양유학 더욱 설고  
 웅천(熊川)이 하도(下道)라도 제 날 탓이 아니런가  
 명태양반 조롱마소 명태라 하는 고기  
 이름을 이룰진대 명성겁지27) 이 아니며  
 월내를 불작시면 북해태수 그럴쏘나  
 줄을씨고 줄을씨고 명태양반 줄을씨고  
 한산양반 누길런고28) 허허 이 말 가소(可笑)롭다29)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厭之)하여30) 심술긋은 군자네가  
 손 안대고 잡는구나  
 그대 양반 내어놀소 아가사창(我歌查唱)31) 우습도다  
 아들 자랑 흥일런가 선대(先代) 세업(世業)32) 전하기도  
 아들이 제일이요 후세(後世)복록(福祿) 연면(連綿)33)키도  
 아들이 으뜸이라  
 그대들 진미워도 나는 더욱 얼러보세34)  
 동개동개 내 강아지 소중코도 유관(有關)하다35)  
 음전36)얇전 이내들이 매사(每事)가 천연(天然)37)하니  
 음전하기 자연(自然)이요 천성(天性)이 민첩(敏捷)하니  
 얇전하기 여사(如斯)38)로세

음전암전 아니오며 사람이라 발명(發明)39)할까  
 월녕들녕 군제시는 시기(猜忌)40)하는 말이로세  
 동실동실41) 구슬 말은 그게 다 조롱인가  
 야광주(夜光珠)42) 광명주(光明珠)43)는 천하(天下)절보(絶寶)44) 이 아닌가  
 연경주 여어주나 값을 준들 구할쏘나  
 백옥(白玉)이 무하(無瑕)45)하니 모함하기 가지로세  
 아니할가 아니할가 일가(一家)재세46) 아니할가  
 백대지친(百代之親)47) 일렀거든 하물며 우리양반  
 한훤(寒暄)선생(先生)48) 후예로서 교남(嶠南)49)의 명족(名族)50)이요  
 국내의 대반(大班)51)이라 재세인들 아니할가  
 자별52)하의 자별하의 동향(同鄉)동서(同墟)53) 자별하의  
 내 고향이 동서(同墟)고향 내 시덕이 동서(同墟)시덕  
 그 정분(情分)54) 어떠하며 그 친의(親誼)55) 오죽하리  
 조롱할 말 바이 없어 치산(治産)56) 알뜰 조롱인가  
 조선의 전한시업 못 지키면 누 탓이며  
 자손의 지칠 재물 못 불린 내 흠일세  
 그대들 찾아올 제 대접못한 탓이로세  
 이보소 제종(諸宗)57) 시매(媿妹)들아 우리 말씀 들어보소  
 여자몸이 되었거든 여자(女子) 직분(職分)58) 할지어다  
 어른을 공경(恭敬)하고 자손(子孫)을 훈계(訓戒)59)하며  
 치산(治産)도 하려니와 방적(紡績)60)인들 버릴쏘나  
 온용(溫容)61)한 행동거지 유한(幽閑)62)한 심성(心性)으로  
 놀음을 한다해도 약소(弱小) 음식으로  
 규중(閨中)63)에 설시(設施)64)하고 조용히 할 것이지  
 무례(無禮)한 분네들은 호남자(好男子)65)의 본을 받아  
 공청의 히소정코 쇠바린66)지 잡혔다고  
 뭉텅뭉텅 때를 지어 시끌땡땡 즐기면서  
 이도 가자 저도 가자 우리 마음 모르고서  
 두 번 세 번 간청하되 참여(參預)67)할 뜻 없건마는  
 거를망정 시매(媿妹)인고로 무료(無聊)히68) 여길런가  
 십분 마음 간직하여 좋은 뜻이 따라가니  
 상좌(上座)에 앉히고서 양간회(胖肝膾)69) 개장국70)의  
 대접이야 착실하나 마음에 불가(不可)  
 구미(口味)가 절로 없네 무지막지 이 분네야  
 자괴(自愧)71)한줄 모르고서 못한 일을 잘한치로72)  
 면면(綿綿)히73) 자랑하며 철같은 우리 마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루 놀음 배설(排設)74)하고  
 오늘같이 놀아보세

괴암괴암 하건마는 어리석은 어느 누가  
저거란줄 모르고서 부당지사(不當之事)75) 행할런가  
우리 잔채76) 먹이려던 수다한 자질(子姪)77)놈들  
신행(新行)78)하고 조문(弔問)할 제 아니 잊고 청하거든  
부조(扶助)나 많이 하고 저저이79) 돌아오며  
쇠빠가자 도창자와 명태대갈 문어공지  
박박주(薄薄酒)80) 한잔으로 포식(飽食)을 시키리라  
양반 시매(媿妹) 대접말은 취중(醉中)에 한말인가  
진정으로 농담인가  
그대들 본양반은 좋은줄 알거니와  
알지못한 시덥양반 각각으로 내어놀소  
종반(宗班)81)거상(巨商)82) 하당덥아 호가사(好家舍)83)가 양반인가  
종늬은이 학동덥아 문필(文筆)84)하면 양반인가  
자궁줄은 진평덥아 센사장이 양반인가  
숨씨줄은 관동덥아 나락85)섬86)이 양반인가  
새각시 신안덥아 신랑줄다 양반인가  
심성줄은 부산집아 산협(山峽)87)살이 양반인가  
알뜰하다 신곡집아 탕건(宕巾)88) 하나 양반인가  
예무시라89) 양반보소 양반걸려 못살겠네  
비위가 단단하며 무병(無病)하기 제일이요  
백년을 축수(祝壽)90)하니 인정도 고맙도다  
우리들 분요(紛擾)91)중의 이 가사(歌詞) 기록키는  
미거(未學)92)한 시매(媿妹)들을 행사(行事)93)를 가르치니  
시시(時時)로94) 펴어보면 유익함이 없을쏘나  
일후(日後)에 바라기는 괄목상대(刮目相對)95) 원(願)이로세  
정월이십일(正月二十日)  
끝



[각주]

- 1) 제종(諸宗) : 한 거래붙이의 본종(本宗)과 지파(支派)를 통틀어 이르는 말.
- 2) 시매(媿妹) : 시누이.
- 3) 변화(繁華) : 번성하고 화려함.
- 4) 흥성(興盛) : 융성(隆盛). 기운차게 일어나거나 대단히 번성함.
- 5) 남만이나 : 남만큼이나.
- 6) 가소(可笑) : 터무니없거나 같잖아서 우스움.
- 7) 성당(成黨) : 도당(徒黨)을 이룬.
- 8) 숙질(叔姪) : 아저씨와 조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9) 유시(幼詩) : 어릴 때.
- 10) 굿분 : 굿부다의 어근. 굿부다는 ‘구쁘다(배 속이 허전하여 자꾸 먹고 싶다. 채워지지 아니한 허전한 느낌이 있다.)’의 옛말.
- 11) 심사(心思) : 어떤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
- 12) 천원(泉源)기수(淇水) : 시경(詩經) 위풍(衛風) 죽간(竹竿)편의 泉源在左 淇水在右 女子有行 遠父母兄弟(천원이 왼쪽에 있고 기수는 오른쪽에 있네. 여자에게 행실이 있어 부모형제를 멀리하는구나)라는 구절. 위나라의 처녀가 멀리 타국으로 시집가서 고향산천을 그리워하는 정경이 나타나 있음. 이 전고(典故)에서 본 작품이 <기수가(淇水歌)>라는 제목을 갖게 됨.
- 13) 의희(依稀)하다 : 거의 비슷하다.
- 14) 구름뭏듯 : 구름이 모이듯.
- 15) 벽해(碧海) : 질푸른 바다.
- 16) 슬하(膝下) : 무릎 아래라는 뜻으로, 거느리는 곁이나 품안. 주로, 부모(父母)의 보호(保護) 영역(領域)을 이룸.
- 17) 오동소옥 봉황 : 봉황은 깃털에는 오색 무늬가 있고 소리는 오음에 맞고 우렁차며, 오동나무에 깃들이어 대나무 열매를 먹고 영천(靈泉)의 물을 마시며 산다고 함.
- 18) 희희낙락(喜喜樂樂) :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
- 19) 디리 : 들입다(세차게 마구)’의 경상도 방언.
- 20) 연자(燕子) : 제비.
- 21) 고택(故宅) : 옛집. 예전에 살던 집.
- 22) 길일양신(吉日良辰) : 좋은 날. 좋은 때. 吉辰(길신).
- 23)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花時) : 나뭇잎이 푸르게 우거진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나올 때. 첫여름을 나타내기도 함.
- 24) 분내 : 분네의 오기(誤記). 분네는 ‘분’을 덜 친근하게 이르는 말. 둘 이상의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 25) 하도(下道) :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道).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26) 막비왕토(莫非王土) :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음.
- 27) 명성겁지 : 명경급제(明經及第). 조선 시대 문과(文科)의 하나인 명경과에 급제함. 명경과는 조선후기에는 시험방식이 구독(句讀)과 훈석(訓釋)을 암기하는 방식이 되어, 단순히 경전 구절의 정확한 암기 여부를 시험하는 것으로 바뀐. 문과에 비해 급이 낮은 것으로 취급받았음.

- 28) 누길런고 : 누구일런고.
- 29) 가소(可笑)롭다 : 같잖아서 우스운 데가 있다.
- 30)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厭之)하여 : 승기자염지(勝己者厭之). 재주가 자기(自己)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함.
- 31) 아가사창(我歌查唱) :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부른다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책망(責望)을 들을 사람이 도리어 큰소리를 침을 이르는 말.
- 32) 세업(世業) : 대대로 이어서 내려오는 직업.
- 33) 연면(連綿) : 혈통, 역사, 산맥 따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잇달아 있음.
- 34) 얼러 : ‘어르다’의 어근. ‘어르다’는 몸을 움직여 주거나 또는 무엇을 보여 주거나 들려주어서, 어린 아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하여 준다는 뜻.
- 35) 유관(有關)하다 : 관계나 관련이 있음.
- 36) 음전 : 말이나 행동이 곱고 우아함. 또는 양전하고 점잖음.
- 37) 천연(天然) :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
- 38) 여사(如斯) : 이와 같음.
- 39) 발명(發明) :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힘. 또는 그런 말.
- 40) 시기(猜忌) : 남이 잘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함.
- 41) 동실동실 : 동그스름하고 토실토실한 모양.
- 42) 야광주(夜光珠) : 큰 진주의 미칭. 예로부터 중국에서 사용된 담수산 쌍각류 조개에서 얻은 빈주와는 대조적으로 크고 아름다운 바다진주를 말함.
- 43) 광명주(光明珠) : 밝게 빛나는 구슬.
- 44) 절보(絶寶) : 매우 귀중한 보물.
- 45) 무하(無瑕) : 흠이나 티가 없음.
- 46) 재세 : 어떤 힘이나 세력 따위를 믿고 교만하게 굽.
- 47) 백대지친(百代之親) : 먼 조상 때부터 가까이 지내 온 집안 사이의 친분.
- 48) 한훤(寒暄)선생(先生) :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인 김굉필(金宏弼)의 호인 한훤당(寒暄堂)에서 유래. 김중직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특히 《소학》에 심취하여 ‘소학동자’라 자칭. 1610년(광해군 2년) 정여창(鄭汝昌)·조광조·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등과 함께 5현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됨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인물로 인정받음.
- 49) 교남(嶠南) : 조령(鳥嶺) 남쪽의 경상도를 의미하는데, 즉 영남(嶺南)의 별칭.
- 50) 명족(名族) : 이름난 집안의 겨레붙이.
- 51) 대반(大班) : 크고 이름난 양반가문.
- 52) 자별(自別) : 친분이 남보다 특별함. 각별(各別).
- 53) 동서(同壻) : 시아주버니의 아내를 이르는 말. 시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54) 정분(情分) : 사귀어서 정이 든 정도. 또는 사귀어서 든 정.
- 55) 친의(親誼) : 매우 친밀한 정.
- 56) 치산(治産) : 집안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다스림.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일.
- 57) 제종(諸宗) : 한 겨레붙이의 본종(本宗)과 지파(支派)를 통틀어 이르는 말.
- 58) 직분(職分) :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

- 59) 훈계(訓戒) :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또는 그런 말.
- 60) 방적(紡績) : 동식물의 섬유나 화학 섬유를 가공하여 실을 뽑는 일.
- 61) 온용(溫容) : 성품이 온화하고 조용함.
- 62) 유한(幽閑) : 여자의 인품이 조용하고 그윽한 모양.
- 63) 규중(閨中)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 64) 설시(設施) : 시설.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함.
- 65) 호남자(好男子) : 호걸의 품모나 기품이 있고 남성다우며 풍채가 좋은 사나이. 호남아(好男兒).
- 66) 쇠바리 : 소바리. 등에 짐을 실은 소. 또는 그 짐.
- 67) 참여(參預) : 참여(參與).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
- 68) 무료(無聊)히 : 흥미 있는 일이 없어 심심하고 지루하게.
- 69) 양간회(胖肝膾) : 소의 양과 간을 날로 잘게 썬 음식.
- 70) 개장국 : 개고기를 넣고 끓인 국. 복날에 먹는 절식의 하나. 개장·구장(狗醬)·지양탕(地羊湯) 또는 보신탕(補身湯)이라고도 함. 보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절식(節食).
- 71) 자괴(自愧) : 스스로 부끄러워함.
- 72) 잘한치로 : 잘한 것처럼.
- 73) 면면히(綿綿-) : 끊어지지 않고 죽 잇따라.
- 74) 배설(排設) : 연회나 의식(儀式)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 75) 부당지사(不當之事) : 이치에 맞지 아니한 일.
- 76) 잔채 : '잔치'의 평안도 지역 사투리. 함경 지역에서도 종종 사용됨.
- 77) 자질(子姪) : 자여질(아들과 조카를 통틀어 이르는 말).
- 78) 신행(新行) : 혼인을 한 후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가는 일. 우귀(于歸), 우례(于禮)라고도 함. 신행하는 날은 택일을 해서 좋은 날을 정하는데, 신랑집에서 정하기도 하고 신부집에서 정하기도 함.
- 79) 저저이 : 제제(濟濟)히. 삼가고 조심하여 엄숙하게.
- 80) 박박주(薄薄酒) : 아주 텁텁하고 맛이 좋지 아니한 술.
- 81) 종반(宗班) : 임금의 본종(本宗)이 되는 겨레붙이.
- 82) 거상(巨商) : 밀천을 많이 가지고 크게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
- 83) 호가사(好家舍) : 화려하게 잘 지은 집.
- 84) 문필(文筆) : 글과 글씨를 아울러 이르는 말.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일.
- 85) 나락 : 벼[稻]의 경상북도 사투리.
- 86) 섬 :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씀. 한 섬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
- 87) 산협(山峽) : 두메. 도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변두리나 깊은 곳. 산속의 골짜기.
- 88) 탕건(宕巾) :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하나. 말총을 잘게 세워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턱이 지도록 뚝. 집 안에서는 그대로 쓰고 외출할 때는 그 위에 갓을 씀.
- 89) 무시라 : 푸념하는 소리로서 보통 혼자서 사용하는 경상도 사투리.
- 90) 축수(祝壽) : 오래 살기를 빚.
- 91) 분요(紛擾) :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움.
- 92) 미거(未舉) : 철이 없고 사리에 어두움.

93) 행사(行事) : 어떤 일을 시행함. 또는 그 일.

94) 시시(時時)로 : 때때로(경우에 따라서 가끔).

95) 괄목상대(刮目相對) : 눈을 비비고 사람을 다시 봄. 학식이나 재주가 전에 비해 몰라볼 정도로 長足(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 주로 손아랫사람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랍게 향상된 경우를 일컬음.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